기술사업화 이야기 >

공지 기술은 대전에서, 자본은 서울에서, 검증은 충북에서 | 창업특별도 충북 정책포럼 토론 후기

기술사업화 랩 위드
2026.10.28. 08:53 조회 15

댓글 1 URL 복사

충북 창업도시, 무엇으로 차별화할 것인가 — '검증 허브' 제안



안녕하세요,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대표 조남주입니다.
10월 26일(월)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「창업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」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.

저는 이 자리에서 충북 창업도시의 차별화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제안했습니다.
"기술은 대전에서, 자본은 서울에서, 검증은 충북에서."

■ 포럼 개요

일시: 2026년 10월 26일(월) 14:00~16:00

장소: 충북연구원 1층 대회의실

주최: 충북정책개발센터 / 공동주관: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(재)충북테크노파크 / 후원: 충청북도

2부 좌장: 김학도 前 중소벤처기업부 차관



■ 원칙: 차별성이 없으면 투자도, 선정도 없습니다

저는 개인전문투자자로, 그리고 국가 R&D 기획·평가위원으로 오래 일했습니다.
그동안 확인한 기준은 하나입니다. 차별성이 없으면 투자도, 과제 선정도 없습니다.

창업도시 계획도 하나의 사업계획입니다.
국비를 나누는 정부와 기업을 고르는 투자자에게 "왜 충북인가"를 답해야 합니다.

■ 진단: 같은 항목으로 경쟁하면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



2026년 5월 중기부와 협약한 대구·대전·광주·울산의 창업도시 계획은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.
과기원 거점, AI·로봇·바이오, 그리고 인재·사업화·투자·정주 지원입니다.

이 구도에서 충북은 불리합니다.

기술: 충북에는 과기원이 없습니다. 대전(KAIST·대덕특구)에 뒤집니다.

자본: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는 충북 1,012억 원, 대전 4,359억 원으로 약 4.3배 차이입니다. 수도권은 전국의 68.4%를 차지합니다.

같은 항목으로 경쟁하면 충북은 비교 대상에 그칩니다.

■ 자원: 충북에만 있는 3대 검증 자원



충북에는 다른 도시에 없는 자원이 있습니다.
① **이차전지 양산 공급망(오창·청주):** 약 145개 기업이 모여 전국 생산액·종사자의 30% 이상을 차지합니다.
② **반도체 양산 공급망(청주):** SK하이닉스 M15X가 D램·HBM 생산기지로 장기 20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했습니다.
③ **바이오 규제기관 집적(오송):** 식약처·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국책기관 6곳이 한곳에 있습니다.

반도체와 이차전지는 2026년 상반기 충북 수출 219.2억 달러의 약 72%를 차지합니다.

중요한 점은, 세 자원이 모두 ”기술이 시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"이라는 것입니다.
대전의 기술도, 서울의 자본도 결국 이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.

■ 해법: 공급망별 실증(POC)과 '충북 서티'



공급망별 POC: 앵커기업과 규제기관이 과제를 먼저 냅니다. 스타트업은 공급망의 특정 단계(소재, 부품·장비, 양산, 재활용·인허가)에서 검증을 받습니다.
충북 서티(인증): 실증을 마친 기업에 충북이 공인된 검증 결과를 줍니다. 앵커기업 평가에 투자자·규제 전문가 심사를 더해 신뢰를 높입니다.
시장 진입 연계: 서티를 앵커기업 협력사 등록 심사와 연결합니다.
울산도 산단 개방형 실증을 내세웁니다. 충북의 차이는 실증의 **단위(공급망 단계)**와 **결과의 공인(서티)**에 있습니다.
다른 도시는 실증할 장소를 줍니다. 충북은 믿을 수 있는 검증 결과를 줍니다.

■ 효과: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
투자 유치: 초기 기업은 매출 실적이 없어 가치 판단이 어렵습니다.
서티는 검증된 신호가 되어 투자자의 실사 부담을 줄입니다.

기업 유치: 대전 출연연·대학의 기술이전 기업과 타 지역 기업이 서티를 받으려고 충북에 본사·연구소·생산시설을 둡니다.

국비 설득력: "대전 기술의 사업화율과 서울 자본의 투자 성공률을 함께 높인다"는 논리는 충북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주장이 됩니다.

■ 토론회에서 제안한 세 가지

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충북도와 관계기관이 정책으로 설계할 부분입니다.
저는 토론자로서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했습니다.

충북 창업도시의 차별화 축을 **"검증 허브"**로 설정합니다.

3대 자원을 기반으로 **공급망별 POC와 충북 서티**를 설계합니다.

성과지표를 **창업 건수**에서 **협력사 등록·투자 유치·충북 유입 기업 수**로 바꿉니다.

■ 마치며



기업의 사업계획도, 지역의 창업도시 계획도 원리는 같습니다. "왜 우리인가"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랩 위드는 투자자와 R&D 기획·평가위원의 시선으로, 기술의 차별성을 찾고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.

기술은 있는데 "왜 우리인가"에 답하기 어렵다면, 함께 고민하겠습니다.

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북정책개발센터,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충북테크노파크, 충청북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홈페이지: www.labwith.kr

네이버 카페: cafe.naver.com/techcomwith

태그 (10개)
#창업특별도충북 #검증허브 #충북서티 #공급망POC #이차전지 #반도체 #오송바이오 #지역창업 #기술사업화 #랩위드

등록순 최신순 클린봇

기술사업화 랩 위드 작성자
댓글 환영합니다. 어떤 의견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.
2026.10.28. 10:45 답글쓰기

기술사업화 랩 위드
댓글을 남겨보세요
등록